

‘메르스 사태’가 남긴 진정한 교훈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스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스미스 요원은 포로로 잡힌 모피어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은 그저 해악을 끼치는 바이러스에 불과해. 냄새 나고, 병원균이나 옮기며, 자원만 고갈시키는 인류를 그래서 깨끗이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물론 스미스 요원의 허황된 망상은 영화 속 판타지를 통해 사필귀정의 이야기로 종결된다. 위쇼스키 남매가 1999년 첫 시리즈를 발표했던 이 작품은 다소 철학적인 주제와 동양사상을 흥미로운 대중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버무려 담아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요즘 온 나라가 전례 없던 전염병으로 어수선하다. 중동호흡기병으로 알려진 ‘메르스’ 때문이다. 흥흥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니 급기야 정치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를 쓴 이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풍경이 됐다. 악수를 피하거나 팔꿈

치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도 흔한 광경이 돼가고 있다. 지역 상권이나 자영업자들은 메르스 발병 이후 평소보다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는 불멘소리를 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학부모들의 향의가 빗발치자, 경기와 서울 지역의 상당수 교육기관들은 끝모를 휴교를 이어가고 있다. 가히 ‘메르스 사태’라 부를 만하다.

물론 만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나쁠 건 없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과장된 느낌도 지을 수 없다. 정보나 인식의 부재가 막연한 공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식 수준이라면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 올바른 이해의 부족이 불필요한 경기침체나 국가 이미지 혹은 신뢰도의 추락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다. 감염되면 잠복기인 5일을 전후해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의 경우 감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는 점이다. 명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람간의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이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개인 위생에 대한 꼼꼼한 점검, 의심자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격리 조치와 치료 등 다양한 확산 방지책의 적용 등을 통해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걱정스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폭로성 뉴스 위주의 언론 보도로 인한 그릇된 공포의 조장과 사회적인 공감대 및 신뢰 형성의 실패 그리고 ‘매뉴얼’의 부재 등이다. 이른바 ‘퍼블릭 패닉(public panic)’ 현상이다. 잘못된 의학 지식이나 편견, 선입견이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과장되게 만들고 공포의 확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권도, 지도층도, 심지어 병원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은 사태의 수습은 물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였다. ‘매뉴얼의 나라’라는 일본이 당황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매뉴얼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경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신화’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질책들도 이어졌다.

이번 메르스 사태 역시 일반적인 매뉴얼을 벗어났다. 메르스는 밀접 접촉자에서만 전염되고 그것도 낮은 전염력을 보인다는 이제까지 보고에 기초해서 밀접 접촉자만 격리했던 초기 매뉴얼은 밀접 접촉이 없었던 환자의 발병이 나타나고 환자 일인의 전염력이 60명에 육박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예측을 초월한 사태가 생길 때야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방역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택 격리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메르스 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며, 접촉자가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다하더라도 질병의 효과적 통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근거도 없이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SNS를 만들고 퍼나르는 일이나 환자와 접촉자나 의료진, 심지어 그 가족을 죄인시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시민의식의 부재’는 비단 방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문화, 경제, 정치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요즘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속도’와 ‘경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배려와 나눔이라는 성숙한 가치를 추가할 때다. 이런 사회적 성숙이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희망해본다.

서울대학교 의과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Honorary Member(2012년 1월~현재),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수석회장(2015년 1월~2016년 12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이사(2015년 3월~현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2015년 4월~2017년 4월), 한국대학총장협회 운영이사(2015년 6월~2019년 6월)로 활동 중이며, 현재, 2013년 3월부터 순천향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